

광복절과 구원의 날

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.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. 우리나라는 1905년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하고,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는 을사조약을 맺게 됨으로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.

이 일을 놓고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원통해 했다는 것입니다. 장지연은 을사조약이 맺어진 뒤 며칠 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(이날에 묵놓아 통곡하노라)라는 제목으로 글을 씀으로서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자신의 분통터지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.

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이러한 침탈을 동조하고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. 「암살」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라는 배우가 염석진이라는 배역을 연기했는데, 겉으로는 독립운동가였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하는 자였습니다.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

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해방 후 땡땡거리며 잘 살고 있던 염석진을 살아남은 의열단 단원들에게 처단하는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그곳에서 왜 단원들을 배신했는지를 물으니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“독립될 줄 몰랐으니까! 일본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느니까?”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

처음에는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했던 이유는 조선의 독립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조선의 독립이 보였다면,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독립될 줄 알았더라면, 절대로 변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

일본에 맞서서 싸웠을 것입니다. 그리고 고되고 고달프더라도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참았을 것입니다.

이러한 광복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단순히 2천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**죄**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.

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.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무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 두 발을 맞고 난 이후로 완전 항복했듯이, 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폭탄을 통해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. 그 누구도 무엇도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,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.

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,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내가 **죄인**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,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.

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.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해 나가십니다.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났지만, 그것은 날마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 해방을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

26.8.16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

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

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. 이후 우리는 야곱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

자신이 이끌고 있는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, 한 때를 치면 다른 때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합니다. 또 형 에서에게 자신이 가진 것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선물로 보냅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형 에서의 종이라며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.

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빚어나가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. 야곱에게 마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심으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며, 또 야곱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자신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십니다.

구역모임

1. 자녀가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룰 때, 시험점수를 잘 받았지만, 면접을 망치게 되어서 합격이 간당간당할 때, 마침 그 면접관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면,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
2.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만하면 차액으로 수억의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, 약간의 꿈수만 쓴다면,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